

## 〈雲水誌〉의 중국 역사 수용 양상과 그 의미

곽 정 식\*

### 차 례

- |                                        |                                   |
|----------------------------------------|-----------------------------------|
| 1. 들어가기                                | 3) 역사적 사실의 허구화: 충의지사의 송조 중흥       |
| 2. 중국 역사의 수용 양상                        | 4) 역사적 사실의 부분적 수용과 독창적 허구: 남녀 결연담 |
| 1) 岳飛故事의 수용과 부분적 變改                    | 3. 중국 역사 수용의 시각과 의미               |
| 2) 실존인물의 허구화: 충의지사의 신선 적장과 난신적자의 인간 환생 | 4. 마무리                            |

### 국문초록

이 글은 <운수지>에서 중국 역사의 수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역사 사실을 바탕으로 작가가 어떻게 작품 내용을 허구화하는지 알아보고, 또 이를 통해서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운수지>는 중국 南宋의 對金·對元抗爭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되 작가에 의해 허구적인 재창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먼저 金의 兀朮과 내통한 간신 秦檜·萬俟卨의 모함과 계략에 의해 충

\*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 岳飛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는 『宋史』의 사실 기록과는 달리 <운수지>에서 작가는 婚事 문제로 私怨을 품은 王甲의 두 딸이 진회·만사설의 배필이 되어 악비의 冤死를 주도하는 것으로 그려냄으로써 난신적자의 부도덕성을 한층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창조하였다. 이어 옥황상제가 주재하는 사후세계를 배경으로 충의지사와 난신적자의 환생담을 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송의 對金·對元抗爭을 동시에 수용하는 가운데 송조 중흥의 허구적인 서사가 전개되는데, 이때 진회·만사설과 그들의 처를 金·元の 태자·공주로 설정하여 이민족 오랑캐와 동일시함으로써 민족적 적개심을 반영하고 忠義의 뜻을 되새기게 하는 한편, 충의지사 중 악문용을 제외한 8인을 여성인물로 설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남녀 결연담을 통해 소설을 읽는 재미와 함께 바람직한 결혼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운수지>에서 朱元璋의 明나라 건국을 계기로 송조 중흥의 허구적인 서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은 작가가 『春秋』의 大一統主義에 입각한 中華의 正統論을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중국 역사의 수용, 충의지사, 난신적자, 송조 중흥, 민족적 적개심, 중화적 정통론

## 1. 들어가기

<운수지>는 상·중·하 3책의 필사본 장편 국문소설로서 최근에 발굴되어 개략적인 작품 이해를 위한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앞으로 작품 세계 전반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작품 이해를 심화시켜 가는 작업이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sup>1)</sup>

1) 광정식, 새로 발굴한 고소설 <운수지> 연구, 『한국문학논총』 46, 한국문화회, 2007, 61-102쪽.

대체적인 줄거리는 악문용을 비롯한 9인의 南宋 충의지사들이 寒微한 처지에서 기병하여 金·元을 무너뜨리고 송조를 중흥하였으나, 江南에서 吳王(朱元璋)이 일어나자 자신들의 10년 功業을 일장춘몽에 부치고 匹夫書生으로 돌아가 安貧樂業으로 仙道를 구하다 羽化登仙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충의지사로 등장하는 악문용·조혜란·이문영·한계지·문채운·장운영·육자란·사홍옥·진채란은 그 前身이 岳飛·趙鼎·李綱·韓世忠·文天祥·張世傑·陸秀夫·謝枋得·陳文龍 등 南宋(1127~1279)의 실존인물로 되어 있으며, 이들과 대결하는 金나라 태자 올이아·힐니아와 元나라 공주 雲華·月華 또한 그 전신이 남송의 실존인물 秦檜·萬俟卨과 이들의 妻인 綠珠·明珠로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중심인물이 남송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 실존인물인 데다 작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岳飛와 秦檜의 대립 및 金·元과의 대결 또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宋史』의 해당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역사의 소설 수용은 조선후기 장편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개별 작품에 따라 그 시각과 양상은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후반,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이 중국 역사에 실재했던 嚴崇(1480~1568)을 작중 인물로 수용한 데 이어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중국 역사의 소설 수용이 점차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개별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수용 방식도 다양성을 띠게 되었다.<sup>2)</sup>

<운수지>는 중국 남송을 배경으로 북방 이민족인 金·元에 대한 항

2) 임치균, 18세기 고전소설의 역사 수용 일양상, 『한국고전연구』 8, 한국고전연구회, 2002, 154쪽에서 역사 수용의 양상을 대체로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설정된 시대 배경에 따른 역사적 인물을 작중 인물로 단순 수용하는 방식,  
둘째, 특정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 관련된 역사적 인물을 작중 인물로 수용하는 방식.

셋째, 특정 시대의 역사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수용하는 방식.

넷째, 특정 시대의 복수의 역사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수용하는 방식.

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다. 서두에서 對金抗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岳飛(1103~1141)와 秦檜(1090~1155)의 대립과 갈등을 통한 충신의 억울한 죽음이 그대로 수용되고 있으며, 전개부에서 허구적으로 재창조되고 있는 송조 중흥의 이야기 역시 그 중심인물이 남송의 역사적 실존인물을 前身으로 하는 데다 對金抗爭, 對元抗爭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취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송실을 회복한 충의지사들이 강남에서 吳王(朱元璋)이 일어나자 천하를 오왕에게 사양하고 匹夫書生으로 돌아가 안빈낙업으로 仙道를 구하다 羽化登仙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함으로써 명나라 건국(1368년)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또한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이처럼 남송 이후 朱元璋의 명나라 건국에 이르는 200여 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악비·진회·문천상 등 복수의 역사적 인물이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데다 남송의 對金·對元抗爭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수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운수지>는 단순히 중국 역사를 배경 차원에서 관습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송조 중흥이라는 특정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반영하여 중국 역사를 본격적으로 수용한 작품이라 하겠다.

이에 본고는 <운수지>에서 중국 역사의 수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역사 사실을 바탕으로 작가가 어떻게 작품 내용을 허구화하는지를 알아보고, 아울러 이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규명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같은 논의를 통해서 국문 장편소설의 중국 역사 수용 방식은 물론 작가의 창작 역량과 창작 수준도 함께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중국 역사의 수용 양상

### 1) 岳飛故事의 수용과 부분적 變改

<운수지>는 서두에서 남송의 충신 岳飛를 등장시켜 간신 秦檜와 그의 처 王氏의 모함으로 악비 일족이 冤死하기까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악비가 태어날 때 큰 새가 지붕에 날아와 울었으므로 이름을 飛, 자를 鵬舉라 하였다. 학업에 힘써 도사에게 글을 배우려고 王甲의 집앞을 지나다니는데, 왕갑의 두 딸이 악비의 인물을 기이하게 여겨 꽃을 꺾어 희롱하자 孟光의 덕이 없다고 여겨 악비가 일부러 왕갑의 집앞을 피해 다닌다. 왕갑이 딸의 배필을 구하려 하자 두 딸이 함께 악비를 천거하므로 왕갑이 악비를 찾아가 간곡히 청혼하였으나, 악비는 거절하고 모친에게 덕행 있는 가문에서 취처하겠다고 하였다. 왕갑이 이 말을 듣고 秦檜와 萬俟卨로 두 딸의 배필을 삼았는데, 두 딸은 于歸하는 날 서로 손을 잡고 악비를 죽여 雪憤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때 북방의 金이 침범해 오자 황제가 진회를 재상에, 만사설을 간의대부에, 악비를 장군으로 삼아 대적하게 한다. 여러 차례 전투에서 승리한 악비가 武穆侯에 봉해지고 송실 회복을 위해 끝까지 오랑캐와 싸울 것을 주장하다 화친을 주장하는 진회와 심각하게 대립한다. 이에 진회의 처 왕씨가 악비를 죽일 것을 재촉하자 진회는 만사설과 함께 황제에게 악비를 참소하고 하루에 열두 번 金牌를 보내 환군하도록 한다. 마침내 악비의 부자가 진회의 칼에 죽고, 딸은 우물에 투신하여 자결하였다.<sup>3)</sup>

이 같은 작품의 서두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송사』에서 단편적으로 살필 수 있다.

---

3) 한기철소장본 <운수지> 상, 1-5쪽 참조.

岳飛는 字가 鵬舉로 相州 湯陰人이다. ……태어날 때 큰 새가 지붕 위에 날아와서 올었다고 하여 이름을 飛라 하였다. 한 달이 채 못하여 황하가 터져 홍수가 나니 어머니가 악비를 안은 채 독 속에 앉아 물결 따라 떠내려 와서 언덕에 닿아 살았으므로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다. 어려서부터 氣節이 있고 성격이 沈厚하고 寡默하였으며, 집이 가난하되 공부에 힘써 左氏春秋와 孫吳兵法을 좋아하였다.<sup>4)</sup>

兀朮이 진회에게 편지를 보내 이르기를, ‘당신은 조석으로 和議를 청하는데 악비는 바야흐로 하북을 도모하려고 한다. 반드시 악비를 죽여야만 비로소 화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진회 또한 악비가 죽지 않으면 끝내 화의가 어렵고 화가 반드시 자신에게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힘써 악비를 죽이고자 하여 악비에게 원한이 있는 간의대부 萬俟卨에게 악비를 탄핵하도록 하고, 또 中丞 何鑄와 侍御史 羅汝楫에게 죄명을 만들어 악비를 탄핵하게 하였다.……억지로 감옥에 가두고는 歲暮가 되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진회가 쪽지 한 장을 써서 옥졸에게 주었는데, 곧 악비의 죽음을 알려왔다. 그때 그의 나이 서른아홉이었다.<sup>5)</sup>

위에 인용한 『송사』의 기록은, 그러나 <운수지>의 관련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송사』에서는 악비와 진회가 주전파와 주화파로 대립하는 가운데 金의 兀朮(金太祖의 넷째 아들)과 내통한 진회의 모함과 계략에 의하여 악비가 억울하게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운수지>에서는 악비에게 구혼했다가 거절당하고 진회·만사설을 배필로 맞이한 왕갑의 두 딸이 于歸하는 날에 서로 손을 잡고 악비를 죽여 설분하

4) 『宋史』 卷365, 列傳 제124 岳飛 (標點校勘『宋史』 5, 景仁文化社, 1977, 466쪽), 岳飛字鵬舉 相州湯陰人 … 飛生時 有大禽若鵠 飛鳴室上 因以爲名 未彌月 河決內黃 水暴至 母姚抱飛坐甕中 衝濤及岸得免 人異之 少負氣節 沈厚寡言 家貧力學 尤好左氏春秋 孫吳兵法.

5) 앞의 책, 471쪽, 兀朮遺檄書曰 汝朝夕以和請 而岳飛方爲河北圖 必殺飛 始可和 檄亦以飛不死 終梗和議 已必及禍 故力謀殺之 以諫議大夫萬俟卨與飛有怨 風高劾飛 又風中丞何鑄 侍御史羅汝楫交章彈論 ……傳會其獄 歲暮 獄不成 檄手書小紙付獄 卽報飛死 時年三十九.

기로 다짐한 데 이어 진회의 처 왕씨가 악비에 대한 황제의 신임이 날로 두터워지자 조정 권력이 모두 악비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하여 남편으로 하여금 서둘러 악비를 죽이게 하는 것으로 개작하였다.

이와 같은, 악비의 冤死에 대한 허구적인 변개는 악비를 소재로 한 明代 연의소설의 국내 전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악비의 실제 사적은 일찍이 남송 말엽 민간 설화인들에 의하여 新話의 소재가 됨으로써 <東窗傳說>이 나왔고, 元代에는 이를 소재로 하여 <地藏王證東窗事犯>, <秦太師東窗事犯> 등의 잡극이 창작되었다. 明代에 와서는 악비를 소재로 한 소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여 <精忠記>·<續精忠>·<大宋中興通俗演義>·<說岳全傳>, 일명 <精忠演義> 등, 이른바 ‘岳家軍小說’이 등장하였는데,<sup>6)</sup> 이 가운데 초기 작품으로 明 嘉靖 31년(1562)에 간행된 熊大木(熊鍾谷)의 <大宋中興通俗演義>를 번역한 것으로 확인된 <武穆王精忠錄>이 현재 낙선재 문고에 소장되어 있다.<sup>7)</sup>

이 <武穆王精忠錄>을 보면, 악비의 冤死와 관련하여 진회의 妻 王氏가 등장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朝見에 나갔다가 돌아온 진회가 난롯불이 이글거리는 따스한 방안에 들어박혀 밀감을 먹으면서 악비를 모해할 궁리를 하다가 가슴이 답답하여 밀감껍질을 조각조각 찢고 있었는데, 그때 왕씨가 들어와서는 남편에게, 속담에 호랑이를 붙잡기는 쉬워도 놓아주는 어렵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여 악비를 감쪽같이 죽여 버리면 된다는 뜻을 비쳤고, 이에 진회가 서둘러 악비 부자를 살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8)</sup>

6) 박재연, 樂善齋本「唐晉演義」·「武穆王貞忠錄」에 대하여, 『樂隱姜鉉燮先生華甲紀念論叢』, 창학사, 1992, 533-535쪽 참조.

7) 映嬪(?~1763)이라는 소장자의 藏書印(映嬪房)이 찍혀 있는 데다 筆寫記가 있는 것으로 보아, 1847년(헌종 13년) 낙선재가 신축되기 훨씬 이전인 영조 36년(1760)에 궁중에서 필사한 번역본임을 알 수 있다. 조희웅, 『고전소설이본목록』, 집문당, 1999, 155쪽, 각주 23) 참조.

8) 낙선재본 <무목왕정충록>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권11이 缺冊으로 되어 있어, 이의 중국본인 <大宋中興通俗演義> 卷11, 秦檜矯詔殺岳飛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낙

이렇게 보면, <운수지>는 <東窓傳說>을 계승한 연의소설 <武穆王精忠錄>을 서두에서 수용하되, 단순히 진희의 처 왕씨가 남편을 도와 악비를 원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 혼사 문제로 私怨을 품은 왕갑의 두 딸이 진희·만사설의 배필이 되어 악비의 원사를 주도하는 것으로, 부분적인 변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2) 실존인물의 허구화: 충의지사의 신선 적강과 난신적자의 인간 환생

<운수지>는 앞서 악비의 원사에 이어 악비의 혼령이 하늘에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진희, 만사설의 불충과 왕갑의 두 딸의 음란함을 고하자, 옥황상제가 4인의 奸賊을 잡아오게 하여 풍도옥에 가두고 혹형을 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sup>9)</sup> 이와 비슷한 내용을 <무목왕정충록>에서 볼 수 있다.

야채 긴창으로써 진희 등을 썰여 촌들의 줌으고 잠기로 어즈러이 썬  
 하니 골육이 다 벗어댔더니 오라거야 쇠갈고리 그어내여 인허야 네 고  
 더 모라 도라가 모슬 부리 기둥의 그 슈죽을 줌으고 썰는 기름을 뿌리  
 며 비 곱해라 하면 쇠환조로 먹이고 목 물내라 하면 구리쇠 녹은 줌으  
 로 마시이더라 아전이 널오디, “이 무리는 사흘에 디옥을 다 도라 온갖

선재본 <무목왕정충록>의 경우, 권11이 缺冊인 까닭에 직접 확인은 어렵더라도 여러 곳에서 東窓傳說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78 서하령조립분스’ ; ‘진희 죽으니 죽을 때의 허 우히 슬히 부르도다 압히고 괴로오물 건더디 못하여 병 구허라 소리 그치디 아니하니…… 이윽하여 피 두어 되를 토하고 죽다. 두어 날 이 못하여 기쳐 왕시 우연이 썰 알핀 있다가 진희 몸의 큰 칼흔 메고 슬피 울고 구허기를 비니 뒤히 수십 귀형이 이서 각각 칼과 도침을 잡고 뿔오니 왕시 눈물을 엉키여 보니 진희 도라 닐너 곱오디, ”동창(東窓) 일이 발각허여다.“ 말이 므츨에 귀뵈(鬼類) 둥히 터 가니 왕시 놀나 짜히 업더디거늘 모든 비첩들이 썰니 붓드러 방둥의 드러가 괴절허야 죽다.” ’79 효빈집동창스범’ ; “胡迪이란 書生이 <東窓傳>을 읽다가 勃然大怒하여 가로대, “다리 긴 간신과 허 긴 겨집이 차마 통효의 사를 가져 괴로이 업시기를 뵈호노도다 … 우생(愚生)이 만일 염나왕이 될 작시면 간사한 진희의 일만 겹질을 벗길다.”

9) <운수지> 상, 5-6쪽 참조.

고초를 밧고 삼년이면 변하여 우 양 개 듯치 되야 인간의 나가 사름으로 하여금 그 고기를 씌흐려 술마 먹게 하고 그 안해는 암돛치 되야 사기를 티며 사름의 더러운 거술 다 주어 먹다가 맛춤내 쓰저 삶는 악익을 면티 못하느니 이 늙 불셔 짐승이 되어 인간의 나간디 쉬남은 차례니라.” 성이 곱오디, “그 죄 덩흔이 잇느냐?” 아전이 곱오디, “만겁을 디 내디 마디 아니하느니 엇디 혼덩이 이시리오”<sup>10)</sup>

여기서는 옥황상제 대신에 염라대왕이 등장하여 진회 부자와 왕씨, 만사설 등 4인을 지옥에 가두고 온갖 고초를 겪게 한 다음 짐승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 더러운 것을 주워 먹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고기를 찢어서 삶아 먹게 하는데, 胡迪이란 서생이 꿈속에서 저승에 갔다가 이를 구경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런데 <운수지>에서는 앞서 악비의 원사를 진회의 처 왕씨가 주도하는 것으로 변개하고 진회에게 동조한 만사설의 처를 진회의 처 왕씨와 자매관계로 설정한 데 이어, 다시 옥황상제를 등장시켜 악비·문천상 등 송조의 충의지사와 진회·만사설 등 난신적자의 환생담을 결구함으로써 이들을 중심으로 송조 중흥과 남녀 결연의 허구적인 서사가 전개된다.

옥황상제는 진회 등 난신적자를 풍도옥에 가두고 醉夢에 들었다가 100년이 지난 뒤 元天曆 연간에 깨어나서 송조의 충의지사와 난신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묻는다. 왕교위가 岳飛·李綱·趙鼎·韓世忠·文天祥·張世傑·陸秀夫·謝枋得·陳文龍 등이 신선이 되어 천당에 와 있으며, 秦檜·萬俟卨 및 이들의 처 王氏가 지옥에 갇혀 업보를 받고 있다고 아뢴다. 상제가 충의지사들에게 소원을 묻자 모두 오랑캐를 멸하지 못한 것이 원통하다고 대답한다. 이에 상제는 이들을 인간세상으로 내려보내 충의지사로 하여금 소원을 풀게 하는데, 악비는 岳顯의 아들 악문

10) <무목왕정총록> 권11(缺冊), 권12, 효빈집동창스범, 명승등보웅진회 참조. 권11의 경우는 <大宋中興通俗演義> 권11, 陰司中岳飛顯靈을 참조할 수 있음.

용, 문천상은 文圭의 딸 문채운, 한세충은 韓卓의 딸 한계지, 장세걸은 張綱의 딸 장운영, 육수부는 陸平의 딸 육자란, 사방득은 謝琨의 딸 사홍옥, 조정은 趙閱의 딸 조혜란, 이강은 李景의 딸 이문영, 진문용은 陳舒의 딸 진채란으로 각각 태어난다. 그리고 진회, 만사설은 金 태자 올이아·힐니아로, 그들의 처는 元 공주 雲華·月華로 각각 환생한다.<sup>11)</sup>

여기서 元 天曆 연間は 1328년~1329년이며, 1141년 악비 사후 180여 년, 그리고 1279년 남송이 멸망한 지는 50여 년이 지난 때이다. 그 사이에 李綱·趙鼎·韓世忠·文天祥·張世傑·陸秀夫·謝枋得·陳文龍 등 충의지사는 죽어서 신선이 되어 있는 데 반해 진회, 만사설 등 난신적자는 지옥에 갇혀 혹형을 당한다. 연호가 제시되고 역사적 실존인물과 함께 송조 중흥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수용되고 있으나, 사후세계인 천상을 배경으로 하고 옥황상제를 주재자로 하여 전개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완전히 허구적이다. 그리고 인간세상에 적당한 충의지사 중 악문용을 제외한 8인을 여성인물로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허구적인 사건 전개와 인물 설정에서 忠義라는 다소 심각한 주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남녀 결연담을 결구시켜 교훈과 흥미의 두 측면을 고려한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 3) 역사적 사실의 허구화: 충의지사의 송조 중흥

이는 元의 마지막(11대) 황제 惠宗(順帝) 연간(1333~1368)을 시간적 배경으로 전개된다. 惠宗 23년(1353) 張士誠의 난으로 악문용은 부모와 헤어져 걸식하다가 철관도사를 만나 수학한 후 중원으로 들어가고, 문채운은 金이 다시 강성해져 나라가 어지러운 때에 이름을 문경천이라 하고 한계지와 함께 기묘한 병법을 발휘하고자 부모 몰래 집을 떠난다. 육자란과 사홍옥은 元 장수 달이용의 침입으로 부모를 잃고 함께 피란하다가 조혜란을 만나 3인이 금화산 위부인에게 의탁하여 병서를 익힌 후

11) <운수지> 상, 6-11 쪽 참조.

중원 회복을 위해 북으로 들어간다. 육자란이 이름을 육봉일로 고치고 문경천을 찾아가 송조 중흥을 위해 먼저 金을 칠 것을 약속한다. 문경천이 자칭 分義將軍이라 하고, 육봉일·조혜란·한계지·사홍옥과 행군하여 金을 평정하고, 태자 올리아·힐니아를 사로잡아 환군한다. 이에 元 황제가 문경천을 두려워하여 달이용을 보내 하복을 치게 하는데, 육봉일이 대적하여 달이용을 죽인다. 이문영은 진채란과 함께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변복하고 상경하다가 걸인 행색의 악문용을 만난다. 악문용·이문영이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병부시랑, 한림학사를 제수받고, 황제의 명으로 출정하여 문경천·한계지·육봉일·사홍옥·조혜란 등과 대적한다. 문경천은 악문용이 악비의 후예임을 알고 송실 회복에 동참하도록 그를 유인하는 술책을 쓴다. 악문용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송실 회복에 동참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는데, 元 황제가 악문용이 변심한 것을 알고 환군을 재촉한다. 악문용이 환군을 미루다 元 장수 달니마·양소에게 살해당할 위기에 처했다가 문경천·이문영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자 元 황제에게 회보하여 君臣之義를 끊고 자칭 大宋分義大將이라 한다. 마침내 徽宗 황제의 손자 조복을 황제로 삼아 百官의 位次를 정하고 400년 大宋의 威儀를 이어가게 한다.

이때 江南의 吳王이 중원을 도모하고자 徐達, 常遇春을 보내 황성을 치게 하는데, 문경천이 白龍潭을 지날 무렵 운무 자욱한 곳에서 白頭仙翁이 나타나, 송실을 중흥하여 선조의 백년 원수를 갚았음을 칭찬하고 국운이 長遠치 못해 火德이 南에 왕성하여 참天子가 다시 나올 것이니 하복을 보존하여 천명을 따르라고 한다. 문경천은 뒤통을 화친한 후 회군하고, 악문용은 元을 쳐서 황제의 항서를 받고 태자 올팔아를 불모로 잡아 회군한다. 하지만 국운이 불행하여 송 황제는 황음무도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죽고, 옥새를 전할 조씨 아이도 구하지 못하게 되자, 악문룡 등 충의지사들은 白龍潭 神人이 일러준 대로, 송조 중흥의 십년 功業을 일장춘몽에 부치고 천하를 오왕에게 사양한 채 匹夫書生으로 돌아가 安

貧樂業으로 仙道를 구하다 羽化登仙하게 된다.<sup>12)</sup>

이처럼 송조 중흥의 서사는 元 惠宗(順帝) 23년(1353) 張士誠의 난에서 1368년 明의 건국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전개되는데, 이는 도입부에서 옥황상제가 악비·문천상 등 송조 충의지사로 하여금 “다시 송나라 십년 천조를 빌녀 그 원을 일우라”<sup>13)</sup>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실존인물의 허구화와 관련하여 악문용·문채란을 비롯한 주인공은 물론 金 태자·元 공주와 같은 적대자가 모두 악비·진회 등 남송 충의지사와 난신적자의 후신으로 설정되었음을 살폈거니와, 송조 중흥의 서사는 그 내용이 남송의 對金·對元抗爭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역사 사실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남송의 난신적자인 진회·만사설과 그들의 처를 金·元の 태자·공주로 환생하도록 함으로써 100년 이상의 시간적 相距가 있는 남송의 對金·對元抗爭을 동시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더구나 對金·對元抗爭에서 남송이 패배한 역사를 송조 중흥이라는 승리의 역사로 꾸며놓았다는 점에서 허구적인 재창조가 작가에 의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4) 역사적 사실의 부분적 수용과 독창적 허구: 남녀 결연담

앞에서 충의지사의 후신으로 악문용을 제외한 8인을 여성인물로 설정한 데다 난신적자 진회·만사설의 처가 되어 악비의 원사를 주도하는 것으로 그려졌던 왕갑의 두 딸이 元 공주 운화·월화로 환생함으로써 이들과 악문용·8娘 사이에 남녀 결연의 서사가 전개된다.

악문용·이문영이 元の 과거에 장원급제하자 황제는 이들을 두 공주의 부마로 간택한다. 두 사람은 부모 승낙 없이 결혼을 임의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옥중 신세가 되었다가 황제의 명을 받고 문경천 등과 대적하기 위해 하북으로 출정하였으나 충신의 후예로 부끄러움을 느껴 元 황

12) <운수지> 중, 26-204, 하, 1-164쪽 참조.

13) <운수지> 상, 10쪽.

제와 君臣之義를 끊고 송실 회복에 동참한다. 이에 元 공주는 혼인 약속을 어긴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하고, 이름을 홍우·이태로 고쳐 신분을 감추고 宋으로 들어간다. 이문영이 이들을 문경천에게 천거하고, 문경천은 다시 황제에게 아뢰어 홍우를 악문용의 휘하에, 이태를 이문영의 휘하에 들게 한다. 홍우·이태가 간계를 꾸며 악문용을 鐵籠 속에 가두고 혼인 약속을 지키라고 하여 꾀박하나 악문용이 끝까지 거절한다. 육봉일이 金 태자 힐니아를 이문영으로 꾸미고 元 태자 달니마의 편지를 위조하여 홍우·이태를 속인 후 육례를 올리자고 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에 올니아를 철룡 속에 가두어 악문용을 구출한다. 운화·월화는 악문용·이문영이 이미 혼인 약속을 어겼으므로 두 사람을 철룡 속에 가두어 둔 채 납채의 예를 올리는데, 뒤에 두 사람이 金 태자 올리아·힐니아임을 알고 대경실색한다. 운화·월화는 궁옥에 갇힌다. 강남에서 吳王이 일어나 徐達, 常遇春을 보내 황성을 치게 하는데, 이 혼란한 틈에 운화·월화가 올리아·힐니아를 설득하여 도망하다 도중에 악문용·이문영·문경천의 부친인 악현·이경·문규 3老公을 만나자 金으로 끌고가 인질로 삼고, 皇恩을 배반하고 국혼을 저버린 자식들을 불러 황명을 좇게 하라고 꾀박한다. 악현·이경이 거절하자 태도를 바꿔 악문용·이문영과 일찍이 혼인 약속한 것을 알리고 舅父之禮를 갖춘다. 이때 악문용이 부친을 찾기 위해 金으로 들어가는데 운화·월화는 3老公을 싣고 이미 元으로 도망한 뒤여서 악문용은 다시 元으로 향한다. 그 사이 운화·월화가 하북에 들어가 송 황제에게 장차 악문용이 모반할 것이라고 하자 어린 황제가 두려워하여 謀士를 구해 계교를 찾으라고 한다. 또 문경천·육봉일·이문영이 모두 여자임을 알려주고, 문경천을 皇后로, 육봉일을 婕妤로, 이문영을 昭儀로 봉하고, 악문용은 일찍이 元 황제와 혼인 약속을 했으니 성사가 되게 하면 宋과 元이 다투지 않아 좋을 것이라고 한다. 황제가 문경천·이문영·육봉일로 后妃 간택을 하겠다고 하고, 악현에게는 악문용을 元의 부마로 삼아 胡元을 막게 하라고 한다. 악현 등 3老公

과 문경천 등은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한다. 운화·월화의奸計임을 짐작한 문경천 등이 진황후가 간혀 있는 곳에 첩자를 보내 그 거처를 알아내고 거짓 편지를 보내는 한편, 올이아·힐니아를 악문용·이문영으로 꾸며婚禮를 올린다. 운화·월화는 뒤늦게 속은 것을 알고 蜀으로 끌려가 빈 암자에 머무른다. 악문용이 황성을 떠난 후 천자가 문경천·육봉일·이문영을 후비로 삼으려 하자, 문경천 등이 絶代佳人 양옥진을 천금을 주고 구하여 궁중에 들여보낸다. 미색에 혹한 천자는 그녀를 昭儀에 봉한다. 문경천이 천운이 기울었음을 말하고 名節을 지키기 위해 떠나기로 하자, 모두 함께 蜀으로 향한다. 황제는 양옥진을 황후로 삼고 충신을 멀리한 채 황음무도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죽는다. 老臣 문규·이경 등이 이를 연왕에게 알리고 국운이 불행함을 한탄한다. 연왕이 황성에 돌아오자 문무백관이 연왕을 추대하여 옥새를 받들어 올리나 연왕은 통곡하고 본심이 아니라고 하며, 나라의 위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문경천 등을 찾아 나선다. 이때 蜀에서 숙녀로 돌아가 천문을 공부하고 있던 문경천 등도 천자 승하하신 것을 알고 다시 황성으로 돌아온다. 이에 서부인, 홍부인 등이 악문용의 혼사 문제를 의논하고 문채운·육자란·이문영으로 3부인을 삼고, 장운영·사홍옥·조혜란·진채란·한계지로 5첩을 삼아 혼례식을 올린다. 한편 운화·월화는 산중에서 仙道를 닦고자 하나 老師에게서 積怨이 많은 탓에 인연이 없다고 하여 거절당하고, 꽃을 씹으면 前生事를 알 수 있는 金花 한 가지를 얻는다. 꽃을 씹은 두 사람은 자신들이 왕갑의 딸로서 진희·만사설과 함께 악비를 죽여 풍도죄인이 되었다가 인간으로 환생한 것을 알게 된다. 또 금화 한 가지를 훔쳐 올이아·힐니아에게 주어 씹게 한 결과, 올이아·힐니아가 자신들의 전생 배필임을 알게 된다. 이리하여 악문용 일가를 죽이려고 사방에 불을 지르다가 도리어 문채운에게 붙잡힌다. 악문용과 8娘이 이들을 심문한 끝에 前生事를 알아내고 이마에 전생 성명을 써서 칼로 베어 죽인다.<sup>14)</sup>

이처럼 인간세상에 적당한 충의지사 중 악문용을 제외한 8인을 여성 인물로 설정하고, 진회·만사설과 그들의 처를 金·元의 태자·공주의 전신으로 설정함으로써 송조 중흥과 동시에 남녀 결연의 이원적인 서사를 가능하게 하였다. 앞서 송조 중흥의 서사가 적극적인 허구화에도 불구하고 충의라고 하는 다소 심각한 주제로 말미암아 역사적 사실과 실존인물에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데 비하면, 후반부에서 남녀 결연의 서사는 부분적으로 실존인물이나 역사적 사실에 다소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소설적 흥미를 위하여 작가가 독창적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중국 역사 수용의 시각과 의미

<운수지>의 내용을 『송사』와 비교해 보면, 岳飛와 秦檜를 중심으로 남송의 對金·對元抗爭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을 뿐, 작가에 의해 허구적으로 재창조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서두에서 남송의 충의지사 악비가 혼사 문제로 私怨을 품은 왕갑의 두 딸과 그들의 남편인 진회·만사설의 계략에 의해 억울하게 죽는 것으로 서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金의 兀朮(宗弼)과 내통한 주화와 진회의 모함과 계략 및 이에 동조한 만사설에 의한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작가가 적극적으로 변개시킨 것이다. 서두에서의 이와 같은 변개는 난신적자의 부도덕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송조 중흥과 남녀 결연을 두 축으로 서사를 진행하기 위한 복선으로 작가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애초 악비는 왕씨가 婦德을 갖추지 못한 음탕한 여자라는 이유로 그 부친 王甲의 간곡한 청혼을 거절한다.

---

14) <운수지> 상, 69-163쪽, 중, 1-204쪽, 하, 1-164쪽 참조.

악비의 상모을 기이히 너겨 쫓출 썩거 썩소리 봄 희롱함을 하니 악비  
눈을 부릅쓰고 보지 아니하여 왈 왕갑의 딸이 남조의 비시 잇고 밍광의  
덕은 업스니 규문의 알음답지 아니흔지라 하고 그 후로는 출형하미 다  
시 왕갑의 집 문으로 지나지 아니하면 지 여러 히라<sup>15)</sup>

악비 가만이 모씨게 간하여 왈 왕갑은 남경 스족이라 너조의 형실이  
정위의 풍되 잇시니 가히 군조 호구의 의논치 못하리니 즉시 청한하고  
덕행 잇는 가문의 취하여써 실가가 잇게 하쇼셔 하니<sup>16)</sup>

악비는 왕씨가 孟光의 德이 없는 데다 鄭衛의 風이 있어 君子好逑로  
혼사를 의논할 수 없다고 한다. 窈窕淑女와는 거리가 먼 부도덕한 여자  
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악비는 덕행 있는 가문에서 취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다. 이에 私怨을 품은 왕씨는 악비에 대한 황제의 신임이 날로  
두터워지자 남편 진희로 하여금 악비를 서둘러 도모하게 하고, 또 계교  
를 제시하는 바, 이 같이 불순한 동기와 목적에서 왕씨의 부도덕성이 거  
듭 확인된다 하겠다.

황제 그 춤무를 아름다히 하샤 무목후을 봉하니 비 칼을 쳐 마음을  
밍세하여 중원을 흥복한 후의 반스하리라 하니 녹뒤 진희에게 가만이  
말하여 왈 비록 조정의 천권하고즈 하나 이제 악비 만일 요금을 멸하고  
환군하면 국가 권총이 다 악비의 도려갈 거시니 엇지 일즉 도모치 아니  
하노 회 왕 계교ㅣ 장차 어디 나리요 녹뒤 동창 아리셔 굴피을 희롱  
하여 왈 호랑이 잡기는 쉬오나 노키는 어렵다 하니 회 이 간모을 목기  
설노 더부러 황제게 참쇼하여 왈 악비 병권을 천단하여 스스로 등원의  
설 쫓을 두어 도라오지 아니한다 하니

왕씨는 남편에게 악비가 중원을 회복하고 돌아오면 조정 권력이 악비  
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서둘러 악비를 도모하라고 하고, 호랑이를 잡기는

15) <운수지> 상, 1쪽.

16) <운수지> 상, 3쪽.

쉽지만 놓기는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악비의 원사는 결국 혼사 문제로 私怨을 품은 왕씨에 의해 雪憤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진회에게는 조정 권력을 攔斷하기 위한 것이었다. 악비의 원사가 이처럼 국가의 存亡과 安危와는 상관없이 사적인 감정과 욕망, 불순한 동기와 목적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난신적자의 부도덕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거니와, 사후에 지옥 죄인이 되어 혹형을 당하는 것으로 부도덕성이 응징된다.

상데 즉시 지부스즈를 명하야 우두나찰노 진회 녹두 등 네 간적을 줍어 풍도옥의 가도고 목의 철가를 쓰이고 발은 철망으로 잠으고 밍호로 그 혈늑을 물고 씹어 써 지부 빅년죄인이 되게 하니 진회 등니 그 독형을 바드며 녹두를 도라보아 왓 니 인간의 잇서 그릇 충양을 흐하여 동창일이 발각하야 지옥죄인이 되니 웃지 빅년 혹형을 견디리요<sup>17)</sup>

이렇게 보면, <운수지>의 서두는 『송사』의 관련 내용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보다 남송 말엽부터 <東窗傳說>을 중심으로 흥미를 끌었던 악비의 원사를 소재로 끌어와 난신적자의 부도덕성을 한층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창조한 것이라 하겠다.

이어서 전개되는 충의지사의 송조 중흥과 남녀 결연 과정의 중간 중간에 ‘토적 장스성의 기병’, ‘지정십오년’, ‘지정말년’ ‘오왕의 명 황데 즉위’ 등 역사적 사건과 시간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실제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元 惠宗(順帝) 23년(1353) 張士誠의 난에서 1368년 朱元璋의 明 건국에 이르는 10여 년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金(1115~1234)·元(1271~1368)을 동시대로 설정하여 송조 중흥의 서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송조의 충의지사들이 金·元을 멸하지 못하고 송실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 遺恨이라고 하자 옥황상제가 ‘다시 송나라 십년 천자를 빌려 그 소원을 이루라’<sup>18)</sup>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리하여 옥황상제가 악비

17) <운수지> 상, 6쪽.

18) <운수지> 상, 10쪽 참조.

등 충의지사를 신선으로 적당하게 하는 한편, 진회·만사설을 金의 태자 올리아·힐니아로, 왕갑의 두 딸을 元의 공주로 환생하게 함으로써 金·元을 상대로 송조 중흥의 서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때 岳飛·李綱·趙鼎·韓世忠·文天祥·張世傑·陸秀夫·謝枋得·陳文龍 등 충의지사의 후신을 악문용·이문영·조혜란·한계지·문채운·장운영·육자란·사홍옥·진채란 등으로 설정하여 악문용과 8남 및 元의 공주 사이에서 남녀 결연의 서사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운수지>의 작가는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인 사건 및 인물들을 교묘히 결합시켜 서사의 중심축을 송조 중흥과 남녀 결연으로 이원화하였다.

실제 역사에서 중국의 對金抗爭은 1127년 남송 정권이 들어선 이후 10여 년간 李綱·趙鼎·岳飛·韓世忠 등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다. 李綱(1083~1140)은 과거에 급제한 문신으로 충성과 의기를 천하에 떨치고 朝野의 聲望이 제일 높았으나 황제에게 金을 향해 진격할 것을 주장하고 失地 회복의 결의를 다지다가 황제의 권력을 빼앗으려 한다는 秦檜 등의 증상모략으로 재상이 된 지 70여 일만에 파직을 당하였다.<sup>19)</sup> 趙鼎(1085~1147) 역시 과거를 거쳐 입신한 인물로 金에 三鎮을 할양하자는 조정 논의가 불가함을 주장하고 秦檜 등의 和議論에 극력 반대하다 귀양가서 죽었으며,<sup>20)</sup> 韓世忠(1089~1151)은 金 兀朮(태조의 넷째 아들)의 군대와 결전을 벌여 승리하는 등 남송의 명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부인 梁紅玉도 무예에 조예가 있어 남편을 도와 군사를 지휘하였는데, 황제에게 화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다 岳飛와 함께 秦檜 등에 의해 兵權을 박탈당하였다.<sup>21)</sup> 岳飛(1103~1141)는 앞에서 간단히 언급하였거니와 對金抗爭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史臣은 논찬을 통해, “岳飛와 秦檜는 양립하기 어려우니 岳飛가 뜻을 얻으면 곧 송나라가 수치를 씻을 수

19) 『宋史』 卷358 列傳 第117 李綱 上, 卷359 列傳 第118 李綱 下(景仁文化社 編, 『標點校勘 宋史』 5, 1983, 433-441쪽) 참조.

20) 『宋史』 卷360 列傳 第119 趙鼎 (앞의 책, 444-447쪽) 참조.

21) 『宋史』 卷364 列傳 第123 韓世忠 (앞의 책, 461-466쪽) 참조.

있고, 秦檜가 뜻을 얻으면 곧 岳飛의 죽음이 있을 뿐인데, 악비를 죽였으니 아! 원통하고 또 원통하구나!”<sup>22)</sup>라고 하였다.

한편 秦檜(1090~1155)는 중국 역사상 간신 중의 간신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인물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민족에게 나라와 백성을 팔고, ‘莫須有’라는 있지도 않은 죄명으로 수많은 충신들을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1128년 금나라 군대에 잡혀가자 금세 투항하여 많은 계책으로 그들을 도왔으며, 금나라 통치자들이 충성을 다한다고 여겨 내외로 연합하도록 송나라로 돌려보내자, 그는 재상 范宗尹에게 청탁하여 조정 에 들어가서는 황제로 하여금 금나라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하루에 12번이나 金牌를 내려 악비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萬俟卨·張俊과 공모하여 岳飛에게 모반죄를 뒤집어씌워 아들 岳雲과 함께 투옥시키고, 萬俟卨로 하여금 거짓 上奏文으로 악비를 탄핵하게 하여 1141년 마침내 악비 부자를 살해하였다. 악비를 살해한 지 9년 뒤 하급군관의 칼에 찔려 비록 죽지는 않았으나 이때에 얻은 병으로 신음하다 1155년에 죽었다.<sup>23)</sup> 萬俟卨(1083~1157)은 악비가 자신을 대할 때 예를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언짢게 여기던 중 진회의 간특한 음모에 동조하고, 言官으로서 진회의 뜻을 대변하였을 뿐 아니라 진회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민족투항 정책을 밀고 나갔다.<sup>24)</sup>

이렇게 보면, 남송의 對金抗爭이 실패한 까닭은 결국 진회·만사설 등 난신적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운수지>에서 이들 난신적자를 金 태자 올이아·힐니아로 환생시켜 충의지사에 의한 송조 중흥의 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 하

22) 『宋史』卷365 列傳 第124 岳飛, 蓋飛與檜勢不兩立 使飛得志 則金讎可復 宋恥可雪 檜得志 則飛有死而已 …故 忍殺飛 嗚呼冤哉! 嗚呼冤哉! (앞의 책, 472쪽) 참조.

23) 『宋史』卷473 列傳 第232 姦臣三 秦檜 (藝文印書館, 『二十五史』36(宋史 7), 1739, 5678-5688쪽) 참조.

24) 『宋史』卷474 列傳 第233 姦臣四 萬俟卨 (앞의 책, 5689-5690쪽) 참조.

켰다.

또한 對元抗爭은 1271년 몽골의 쿠빌라이(世祖)가 도읍을 燕京에 정하고 국호를 元이라 한 후 伯顏을 통수로 삼아 20만 대군을 보내어 남송의 도읍 臨安을 침공함으로써 시작된다. 元의 군대가 臨安城에 이르자 겨우 4세밖에 안 된 남송 恭宗을 대신하여 황제의 조모 태황태후가 조서를 내려 임금의 환난을 구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임금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 文天祥·張世傑 등이다. 文天祥(1236~1282)은 장원 급제한 문신으로 元과의 화친과 투항정책에 반대하여 가산을 팔아 군사를 모집하고 元軍과 결사전을 벌였으며, 1279년 남송 왕조가 멸망한 뒤에도 元 세조의 끈질긴 투항 권고를 거절하고 옥중에서 4년을 지낸 끝에 사형을 당하였다.<sup>25)</sup> 張世傑(?~1279)은 북방 사람으로 젊었을 때 金의 법률을 위반하고 도망쳐 송나라에 찾아와 사병이 되었는데, 전장에서 여러 차례 공을 세워 장군으로 승진하였다. 臨安이 위급하게 되었을 때 소수민족들을 단합시켜 그들의 지원을 받아가며 나라를 되찾고자 하였고, 사족 여성 許夫人의 협조를 받아가며 元軍과의 작전을 진행하였다. 臨安이 함락되자 그는 陸秀夫(1235~1279)와 함께 아홉 살 趙昀(端宗)를 북주로 호송해 가서 황제로 하고 망명조정을 세웠는데, 1279년 崖山 전투에서 패하자 육수부 등 대신들과 어린 황제를 호위하여 배에 태우고 후퇴하다가 육수부는 적들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처자식을 杖劍으로 밀어 바다에 뛰어들게 한 후 자신도 어린 황제를 업고 바다에 뛰어들어 죽었으며,<sup>26)</sup> 이를 멀리서 바라보던 장세걸은 해상에서 태풍을 만나 바다에 침몰하여 최후를 마쳤다.<sup>27)</sup> 謝枋得(1226~1289)은 청년 시절에 특

25) 『宋史』 卷418 列傳 第177 文天祥 (藝文印書館, 『二十五史』 35(宋史 6), 1739, 5108-5112쪽) 참조.

26) 『宋史』 卷451 列傳 第210 陸秀夫 (藝文印書館, 『二十五史』 36(宋史 7), 1739, 5462쪽) 참조.

27) 『宋史』 卷451 列傳 第210 張世傑 (藝文印書館, 『二十五史』 36(宋史 7), 1739, 5460-5462쪽) 참조.

별히 역사 연구를 즐기며 충의지사들을 본받으리라 맹세하였고, 과거 시험지에도 역적 賈似道를 준엄하게 질책한 일로 귀양을 가기도 하였다. 후에 문천상·육수부·장세걸 등의 抗元鬭爭이 모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밤낮으로 통곡하였으며, 元 황제가 벼슬을 주어 회유하려고 大都로 납치하였으나 단식으로 끝내 순국하고 말았다.<sup>28)</sup> 陳文龍 역시 장원급제한 문신으로 氣節을 자부하고 賈似道 등 간신들에 대하여 상소로 극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갖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節義文章이라고 하고 단식하다 순국함으로써 사람들을 감동시켰다.<sup>29)</sup>

이러한 對元抗爭의 역사적 사실이 <운수지>에서는 張士誠의 난(1353)에서 明의 건국(1368)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여 對金抗爭과 동시 진행의 양상으로 수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의 그것과는 별개로 완전히 허구적인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운수지>는 남송의 對金·對元 抗爭에서의 패배와 굴욕이 남송 정권 내부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실제 역사에서 수많은 충신들을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회·만사설을 작가는 옥황상제를 등장시켜 金 태자 올이아·힐니아로 환생하게 하는 한편, 그들의 처를 자매 관계로 설정하여 역시 옥황상제에 의해 元의 공주로 환생하게 하는 등 민족적 적개심을 반영하여 난신적자를 이민족 오랑캐인 金·元과 동일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忠義’의 뜻을 되새기게 하는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한편 악문용과 8娘 및 元의 공주 사이에서 전개되는 남녀 결연담을 통해 교훈과 오락의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악문용은 그 전신이 악비로서 전생에 왕갑의 두 딸이 음탕하다는 이유로 청혼을 거절하였던 바, 이에 私怨을 품고 남편인 秦檜를 사주함으

28) 『宋史』卷425 列傳 第184 謝枋得 (藝文印書館, 『二十五史』36(宋史 7), 1739, 5184-5185쪽) 참조.

29) 『宋史』卷451 列傳 第210 陳文龍 (藝文印書館, 『二十五史』36(宋史 7), 1739, 5463-5464쪽) 참조.

로써 악비가 억울하게 죽은 것인데, 그녀가 元 공주로 환생하고 元 황제가 장원급제한 악문용을 부마로 간택함으로써 다시금 혼사를 둘러싸고 갈등하게 된다. 악문용은 부모의 승낙이 없다고 하여 행례를 미루다 옥중 신세가 되기도 하고, 元 황제와 君臣之義를 끊은 후에는 신분을 감추고 잠입한 元 공주에 의해 여러 차례 곤경에 빠진다. 그리고 심지어 송 황제로부터 元 공주와의 혼인 약속을 지키라는 명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악문용은 元 공주와의 혼인을 거절하고 송조 중흥을 함께 이룬 8娘을 우여곡절 끝에 3처 5첩으로 맞이한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는 남녀 결연담을 통해 소설을 읽는 재미와 함께 바람직한 결혼관을 교훈으로 제공한다고 하겠는데, 작중에서 결혼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악비... 왈 황낭은 천하 박식이로디 공지 처지히시고 밍광은 인간의 추물이로디 양홍이 처지히엿스오니 여로부터 현인군조는 엿지 즈식을 의논하여 구히올잇가 비싱은 미천한 선비라 죠강의 처을 스키여 아니호오니 가히 권귀한 가문의 의논호리요 필부라도 뜻지 잇스오면 위엄으로 여탈을 못호오니 감히 명을 좇지 못호나이다<sup>30)</sup>

이처럼 孔子는 천하 薄色을 아내로 두었고, 인간 醜物 孟光是 梁鴻의 배필이 되었다고 함으로써 모름지기 현인군자는 자색으로 배필을 구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끝으로 송조 중흥의 허구적인 서사가 朱元璋의 明나라 건국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바, 이는 중국의 정통론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朱元璋(1328~1398)은 25세에 紅巾軍에 들어가 크게 두각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紅巾軍은 宋 徽宗의 8대 손자인 韓山童(?~1351)이 劉福通과 함께 1351년 송조 중흥을 위해 白蓮教徒를 결집하여 봉기한 漢族의 농민 반란군으로 1355년 유복통은 한산동의 아들 韓林兒(?~1366)를 황제로 추대하고 정권의 이름을 宋이라 하였다. 1363년 유복통이 元에 투항한 張

30) <운수지> 상, 3쪽.

士誠의 공격으로 전사하자 朱元璋은 1364년 자립하여 吳王이라 칭한 후 徐達·常遇春 등을 북쪽으로 보내 元軍과 대결하게 하였으며, 1367년 韓林兒가 양쯔강을 건너던 중 익사하자 1368년 정월 스스로 제위에 올라 국호를 명, 연호를 洪武라 하였다.<sup>31)</sup> <운수지>는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白頭仙翁이라는 초월자를 등장시켜 火德이 南에 왕성하여 참天子가 나올 것이니 하복을 보존하여 天命을 따르라고 하였다.<sup>32)</sup> 이처럼 송조 중흥의 서사에서 남송 충의지사들에 의해 朱元璋의 명나라 건국이 天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이른바 『春秋』의 大一統主義에 입각한 中華의 正統論<sup>33)</sup>을 수용한 결과로 이해된다.

## 4. 마무리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운수지>는 南宋의 對金·對元抗爭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31) 『明史』 卷1, 本紀1 太祖1, 卷陳2, 本紀2, 太祖2 (藝文印書館, 『二十五史』 46(明史 1), 1739, 52-68쪽) 참조.

32) <운수지> 중, 122-123쪽 참조.

33) 孔子的 『春秋』에서 시작된 中國人の 正統論에 관한 논의를 梁啓超, 『飲冰室文集』 卷三, 歷史類論正統條(鄭在覺, 『중국문제연구』 3, 경성대 인문과학연구소, 1990, 7쪽 재인용)는 다음과 같이 분류, 요약하고 있다.

1. 統治 地域의 廣狹으로 正統, 非正統을 정하고 全國을 統一한 者는 어떤 者라도 이를 正統으로 치는 者.
2. 存續期間의 長短을 가지고 정하되 비록 全國을 統一한 者라도 存續期間이 짧으면 正統으로 보지 않는 者.
3. 前王朝의 血統을 이은 者를 正統으로 치고 그밖은 모두 僞統으로 치는 者.
4. 前王朝의 首都를 建續首都로 삼는 者는 正統으로 치고 그밖은 모두 僞統으로 치는 者.
5. 하나의 王朝를 正統化하기 위해 그것이 물려받은 前王朝까지도 正統으로 삼는 者.
6. 中國種族은 正統으로 하고 그밖은 僞統으로 삼는 者.

이루어졌으나, 작가에 의해서 허구적인 재창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이에 중국 역사의 수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 金의 兀朮과 내통한 秦檜의 모함과 계략에 의해 岳飛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는 『宋史』의 사실 기록과는 달리 <운수지>는 <武穆王精忠錄>을 서두에서 수용하되, 단순히 진회의 처 왕씨가 남편을 도와 악비를 冤死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사 문제로 私怨을 품은 왕갑의 두 딸이 진회·만사설의 배필이 되어 악비의 원사를 주도하는 것으로 그려냄으로써 난신적자의 부도덕성을 한층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창조하였다.

이어 충의지사와 난신적자의 환생담을 결구하여 송조 중흥과 남녀 결연의 허구적인 서사가 전개되는데, 年號가 제시되고 역사적 실존인물과 송조 중흥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수용되고 있으나, 사후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옥황상제를 주재자로 하여 전개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완전히 허구적이다. 이때 악문용을 제외한 8인을 여성인물로 설정함으로써 忠義라는 다소 심각한 주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남녀 결연담을 결구시켜 교훈과 흥미의 두 측면을 고려한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한편 송조 중흥의 서사가 元 惠宗(順帝) 23년(1353) 張士誠의 난에서 1368년 明의 건국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또 악문용·8娘 및 金 태자·元 공주 등 중심인물을 모두 송조 충의지사와 난신적자의 후신으로 설정함으로써 남송의 對金·對元抗爭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긴밀히 결부되고 있다. 그러나 악문용을 제외한 8인을 여성인물로 설정하고, 진회·만사설과 그들의 처를 金·元의 태자·공주로 환생하도록 하여 남송의 對金·對元抗爭을 동시적으로 수용하는 등 허구적인 재창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남송의 충의지사를 金 태자·元 공주의 전신으로 설정하여 이민족 오랑캐와 동일시함으로써 민족적 적개심을 반영하고 ‘忠義’의 뜻을 되새기도록 하는 동시에 악문용을 중심으로 8娘과 元 공주 사이에서 전개되는 남녀 결연담을 통해 소설을 읽는 재미와 함께 바람직한 결혼관을 교훈으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송조 중흥의 서사가 朱元璋의 명나라 건국을 계기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은 『春秋』의 大一統主義에 입각한 中華的 正統論을 수용한 결과로 이해하였다.

## 참고문헌

### 자료

『二十五史』 30-36(宋史1-7), 中國; 藝文印書館, 1739.

『二十五史』 46(明宋史1), 中國; 藝文印書館, 1739.

『標點校勘 宋史』 1-6, 景仁文化社, 1983.

### 논저

곽정식, 새로 발굴한 고소설 <운수지> 연구, 『한국문학논총』 46, 한국문학회, 2007, 61-102쪽.

박재연, 樂善齋本「唐晉演義」·「武穆王貞忠錄」에 대하여, 『樂隱姜銓燮先生華甲紀念論叢』, 창학사, 1992, 533-535쪽.

이승복, <옥환기봉>의 역사 수용 양상과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50집, 2008, 141-182쪽.

임치균, 18세기 고전소설의 역사 수용 일양상- <옥환기봉>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131-162쪽.

조희웅, 『고전소설이본목록』, 집문당, 1999, 155쪽.

<Abstract>

## A Study on Literary Acceptant shape of Chinese History and it's Meaning in 〈Unsoochi〉

Kwak, Jung-Sik

This paper aims at recognizing the literary acceptance of chinese history and considering it's meaning in <Unsoochi>. As the time background of <Unsoochi> is just a part of history and also the principal characters are just connected the existential persons of history, we check the historical facts which are appeared in <Unsoochi> from 『Songsa』. <Unsoochi> is a work which describes the wrangle of South-Song dynasty against Gum and One as the other race's nation. <Unsoochi> generally referred to the record of 『Songsa』 when it was centering on the informations about characters and incidents.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ship among the wrangle of South-Song dynasty against Gum and One as the other race's nations. was changing or expanding positively on the basis of historical record.

From <Unsoochi>, we can find the positive acceptance of chinese history concerning the conflict between Akbi and Zinhwe as faithful retainer and traitor of South-Song dynasty. The writer is trying to explain the reason for the historical facts why Akbi died under a false accusation and failed in the reconstruction of Song dynasty, This content is filled with fighting, revenge and sexual relationship

between faithful retainer and traitor by the writer's extreme imagination. Though the historical facts are mentioned in fragments, we can find out that the author not only has deep knowledge of the wrangle against Gum and One as the other race's nations in the history of South-Song dynasty, but also is aware of <Mumokwangjungchungnok> as a Chinese novel. This work showed us racial animosity and legitimism of Chinese.

Key Words : acceptance of Chinese history, faithful retainer, traitor,  
reconstruction of Song dynasty, racial animosity,  
Chinese legitimism

■ 논문접수 : 2009년 10월 30일  
■ 심사완료 : 2009년 12월 5일  
■ 게재확정 : 2009년 12월 10일